

마음을 비추는 글

최종 단원 평가 1회

04~06쪽

- 01 ③ 02 ⑤ 03 배수관에 머리카락 뭉치가 걸렸기 때문에 세면대가 막혔다. 04 ② 05 ④ 06 ⑤
07 ④ 08 ① 09 ④ 10 ④ 11 ⑤

01 이 글은 소설로,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일정한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도록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이다. 이처럼 소설은 허구의 문학이지만, 현실 세계를 본뜨거나 반영하여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리와 삶의 진술함을 전달한다. ③ 운율을 형성하여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은 시이다.

02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언니인 '나'와 한아는 둘이서 지내게 되지만 한아가 이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언니인 '나'는 한아를 '혹'이라고 표현하며, 아기 취급받는 한아를 못마땅해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엄마가 없는 동안 한아를 돌보아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가)에서 한아는 집에서 아기 취급을 받으며 세상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나)에서 한아는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지 않자 바로 언니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한아는 엄마와 언니의 보호를 받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다)에서 한아는 세면대를 고치는 동안 냄새를 참으며 '나'의 곁에서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

03 (나)에서 '나'와 한아는 세면대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 상황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를 통해 배수관에 머리카락 뭉치가 걸려서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세면대가 막힌 문제 상황을 서술하였다.	☐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배수관에 머리카락 뭉치가 걸렸기 때문임을 서술하였다.	☐

04 이 글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독자는 이러한 '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어 도전하면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05 (마)에서 아직 한아가 어리다고 생각하여 유리컵을 쓰지 못하게 하는 엄마와 달리, '나'는 오렌지주스를 유리컵에 담아 한아에게 준다. 즉 '나'는 한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통해 한아가 마냥 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한아의 성장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마음에서

한아에게 유리컵을 준 것이다. '나'가 이제부터 엄마의 잔소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06 '나'는 멍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세면대를 고친 후, 스패너를 쥐면 손아귀의 힘이 몇 배로 커져 무엇이든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멍키 스패너를 갖고 싶어서, 엄마에게 사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 것이다.

07 이 시의 1연에서 말하는 이는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인식하고, 모든 생명은 다른 존재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2~3연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으로 확장하여, 나무처럼 인간도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쳐 주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08 이 시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쳐 주며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 시를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09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이다. 이러한 글을 쓸 때에는 경험한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순서에 따라(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경험이나 정서를 생생하게 제시하고(ㄷ),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등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ㄱ).

오답 풀이 ㄷ.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라)에서 아빠는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은 자신보다 그 물건을 배달받는 사람들에게 더 소중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빠는 자신이 물건을 대하는 마음보다 배달을 받는 사람들이 물건을 대하는 마음이 더 각별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⑤에서 '누군가의 땀'은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원들의 노력을 의미하며, 택배원이 열심히 배달해 준 물건 덕분에 행복해진 하루를 '선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택배원으로서 일하는 아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비유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택배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택배원들의 노력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비유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영웅'은 이 글에서 아빠를 빗대어 표현한 대상으로 비유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택배원들의 노력에 관해 생각해 보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최종 단원 평가 2회

07~09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멍키 스페너는 '나'의 힘을 더 커지게 하고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소재로, '나'는 멍키 스페너를 사용하여 막힌 세면대를 고치는 경험을 통해 어떤 문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07 ④ 08 ① 09 아빠는 산타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자신도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책임지고 전해 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10 ④

01 (바)에서 외숙모는 만삭의 몸으로 외삼촌 없이 힘들게 지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찬을 싸 주고 집에 별일 없냐고 묻는 등 '나'와 한아를 챙겨 주고 있다.

02 (다)에서 '나'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막힌 세면대를 고치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할머니는 한성 설비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ㄷ). (마)에서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가게 밖을 나서는 '나'에게 관리 사무소에 가 보라고 말하고, '나'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세면대를 봐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로 향했다(ㄹ).

오답 풀이 ㄱ. '나'는 한성 설비 사장님의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한성 설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ㄴ. '나'는 혼자 힘들게 지내는 외숙모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집에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다.

ㄴ. '나'가 엄마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3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일이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고작 머리카락이나 빼 주는 일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수리비가 별로 비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한성 설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물어보고 있다.

04 (마)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결말' 부분으로,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소설의 주제가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은 위기, ②는 전개, ④는 발단, ⑤는 절정에 대한 설명이다.

05 처음에 '나'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자, 스스로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후 '나'는 막힌 세면대를 직접 고치는 데 성공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06 (라)에서 '나'는 멍키 스페너를 손에 쥐면 손아귀의 힘이 몇 배로 커지면서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나'는 멍키 스페너를 사용하여 세면대를 고치는 경험을 통해 어떤 문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게 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면서 성장하였음을 서술하였다.	☐
이 글에서 멍키 스페너의 의미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

07 글쓴이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독자는 이러한 글을 읽고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④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08 이 글은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며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를 지켜본 경험을 전하고 있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다)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아빠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나'는 운송장을 아빠와 동일시하며,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운송장을 말리고 있다.

④ (가)의 '아빠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속상했다.'와 같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에 대한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⑤ (라)에서 '나'는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전달해 주는 아빠의 일이 지닌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9 (다)에서 아빠는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나'의 동생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즉 아빠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배달하는 자신의 일이 마치 산타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 같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아빠가 물건을 배달하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바르게 서술하였다.	☐
'산타', '선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10 ㉔은 아빠가 택배원으로서 일하면서 깨닫게 된 점으로, 아빠는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은 자신보다 그 물건을 배달받는 사람들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대하는 마음이 매우 각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2 다채로운 단어

최종 단위 평가 1회

14~16쪽

- 01 ① 02 ② 03 ⑤ 04 이, -고, -다
05 ① 06 ③ 07 ⑤ 08 ④ 09 ㉠: 어
근, ㉡: 접사 10 ④ 11 ① 12 ③ 13 ②
14 ③ 15 ③ 16 ④ 17 ④ 18 ③
19 ⑤ 20 ⑤ 21 ④ 22 ②

01 '나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나'와 '무'로 나누면 본래의 뜻과 관계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감나무'는 '감'과 '나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조사 '가'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
④ '감나무'와 '크다'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단어로 해당한다.
⑤ '크다'는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등이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을 갖는 '크-'와 문장을 마친다는 문법적인 뜻을 갖는 '-다'로 나눌 수 있다.

02 ② '책가방이 무겁다'는 '책가방/이/무겁다'와 같이 3개의 단어로 구성되고, '책/가방/이/무겁-/~다'와 같이 5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봄바람/이/불다'와 같이 3개의 단어로 구성되고, '봄/바람/이/불-/~다'와 같이 5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문장이다.
③ '누나/가/김밥/을/먹다'와 같이 5개의 단어로 구성되고, '누나/가/김/밥/을/먹-/~다'와 같이 7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문장이다.
④ '꽃과일/이/매우/시다'와 같이 4개의 단어로 구성되고, '꽃/과일/이/매우/시-/~다'와 같이 6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문장이다.
⑤ '강/에/물안개/가/끼었다'와 같이 5개 단어로 구성되고, '강/에/물/안개/가/끼-/~다'와 같이 8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문장이다.

03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⑤ '손잡이'를 형태소로 나누면 '손+잡+~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종이'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② '지우개'를 형태소로 나누면 '지우+~개'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③ '떠든다'를 형태소로 나누면 '떠들+~~다'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④ '얹히다'를 형태소로 나누면 '얹+~히+~다'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04 '하늘이 높고 푸르다'를 형태소로 나누면 '하늘/이/높-/고/푸르-/~다'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하늘, 높-, 푸르-'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고, '이, -고, -다'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주어진 문장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를 모두 찾아 썼다.	☐

05 ① '그날'은 '그(관형사)+날(명사)'로, 모두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끼리 이루어진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② '땅딸(명사)+~보(접사)'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③ '치받다'는 '치-(접사)+받-(어간)+~다(어미)'로,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방실(부사)+~대다(접사)'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햇-(접사)+비둘기(명사)'로, 의존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06 '길이'의 '-이'는 (몇몇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입김'의 '입'은 어근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② '들판'의 '판'은 어근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④ '나라'는 어근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⑤ '건너가자'의 '건너-'는 어근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07 ⑤ '강아지가 무섭게 짖는다.'는 '강아지/가/무섭-/~게/짖-/~는-/~다'와 같이 총 7개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 중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가, 무섭-, -게, 짖-, -는-, -다'의 6개이다.

오답 풀이 ① '하늘/도/파랗-/~구나'와 같이 총 4개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이 중 의존 형태소는 '도, 파랗-, ~구나'의 3개이다.
② '물/통/에/물/을/담-/~자'와 같이 총 7개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이 중 의존 형태소는 '에, 을, 담-, ~자'의 4개이다.
③ '꽃/이/활짝/파-/~었-/~네'와 같이 총 6개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이 중 의존 형태소는 '이, 파-, ~었-, ~네'의 4개이다.
④ '영희/는/학교/에/가-/~았-/~니'와 같이 총 7개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이 중 의존 형태소는 '는, 에, 가-, ~았-, ~니'의 5개이다.

08 '겁쟁이, 고집쟁이'의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형태소의 분류 기준 중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나누면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나누면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09 단어의 구성 요소에는 어근과 접사가 있다.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이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는 형태소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단어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썼다.	☐

10 ④ '맨드라미'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오답 풀이 ① '쑥(어근)+갯(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② '들-(접사)+국화(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③ '흑(어근)+장미(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개나리(어근)+꽃(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1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나뉜다. ① '습관'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오답 풀이 ② '없이'는 '없-(어근)+-이(접사)'로, 형용사 어근에 (일부 부사,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③ '낭비하는'은 '낭비(어근)+-하는'으로, 명사 어근에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다(하는)'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살아남는'은 '살-(어근)+남-(어근)'으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거미줄'은 '거미(어근)+줄(어근)'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2 '개떡'은 '개-(접사)+떡(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나머지는 '쌈+물', '물+개', '떡+집', '집+밥'과 같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3 '뛰어오다, 날아가다, 오르내리다'는 각각 '뛰-(어근)+오-(어근)', '날-(어근)+가-(어근)', '오르-(어근)+내리-(어근)'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모두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14 ③ '꽃샘추위'는 '꽃샘(어근)+추위(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단어를 형성할 때 접사끼리 결합해서는 단어를 이룰 수 없다.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를 이룬다.

오답 풀이 ①, ② '천둥'과 '소나기'는 모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단일어는 더 작은 의미 단위로 나눌 수 없다.

④ '먹구름'은 '먹-(접사)+구름(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⑤ '황소구름'은 '황소(어근)+구름(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5 새말은 합성이나 파생과 같이 기존 단어의 짜임에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오답 풀이 ①, ② 새말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려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로,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외래어나 이를 우리말로 순화한 말도 새말에 포함된다.

④ 기존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말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친추(친구+추가)'처럼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거나, '네티켓(네트워크+에티켓)'처럼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다.

⑤ 창의적인 새말은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하지만, 재미 위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새말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16 ④ '리허설'을 우리말로 다듬은 '예행연습'은 '예행(어근)+연습(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카운슬링'을 우리말로 다듬은 '상담'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② '레시피'를 우리말로 다듬은 '조리법'은 '조리(어근)+-법(접사)'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③ '브로슈어'를 우리말로 다듬은 '소책자'는 '소-(접사)+책자(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⑤ '캘리그래피'를 우리말로 다듬은 '멋글씨'는 '멋(어근)+글씨(어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17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대 간 소통이 더 원활해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세대 간 소통 방식과 언어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청소년층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메신저와 같은 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에, 노년층은 전화 통화나 직접 대면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줄임말, 외래어 등 새말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층과 달리 노년층은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나 예의를 갖춘 표현 등 여전히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8 '사흘간'은 '3일 동안'을 뜻하는 말이므로 '사흘간 운영을 중단합니다.'는 '3일 동안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로 고쳐야 적절한 표현이 된다.

오답 풀이 ①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② '별고'는 '특별한 사고'를 뜻한다.

④ '무료함'은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함'을 뜻한다.

⑤ '국룰'은 '보편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뜻한다.

19 제시된 '프로타주, 블록체인, 빅 데이터 마케팅'은 각각 '미술', '정보 통신', '경영'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니는 경우가 적다.

오답 풀이 ①, ②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말로, 고유어보다 외국어나 외래어,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③ 전문어는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해당 분야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④ 전문어는 일반인이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 오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20 "물속에 공기가 너무 많이 녹아 있어서 지느러미에 기포가 생긴 거예요."에서 알 수 있듯이 ㉠의 '수의사'는 ㉡와 달리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와 ㉣ 모두 '거품병'이라는 수의학 분야의 전문어가 쓰였다.

② ㉡와 달리 ㉣의 대화 참여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③ ㉡와 ㉣ 모두 '수의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④ ㉣의 '고객'이 전문어인 '거품병'에 대해 이해한 것은 '수의사'가 '거품병'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21 ④ '제에에에발'과 같이 음절을 반복하여 쓰면 언어 표현이 길어지므로 '간편하게 쓰기'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인터넷 언어는 소통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어 시간 수행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상황은 공적인 상황이므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단원 평가 2회

17~19쪽

01 ⑤

02 ②

03 ①

04 자립성의 유무, 실질적 의미의 유무

05 ④

06 ③

07 ③

08 ⑤

09 ①

10 ③

11 ④

12 ⑤

13 ②

14 ①

15 ①

16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17 ②

18 ④

19 ⑤

20 ③

21 ④

01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서 단어로 인정한다.

오답 풀이 ①, ③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②, ④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나누면 단어가 지닌 뜻이 사라지거나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어서 더 나눌 수 없다.

02 ② ‘햇밤/을/입/에/넣고/싶다’와 같이 6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5개의 단어로 구성된 다른 문장들과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개수에 차이가 있다.

오답 풀이 ① ‘언니/와/동생/이/다툼다’와 같이 5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③ ‘강아지/가/왈왈/짖어/댄다’와 같이 5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④ ‘할머니/께서/병원/에/가셨다’와 같이 5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⑤ ‘가을바람/이/선들거릴/때/이다’와 같이 5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단어에 해당한다.

03 실질 형태소에 포함되는 용언의 어간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따라서 ‘㉠ 실질 형태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이다.’는 ‘실질 형태소가 모두 자립 형태소는 아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 접사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하지만,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고, 어미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04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평가 기준	확인 ☒
형태소의 분류 기준 두 가지를 바르게 썼다.	☐

05 ‘이 사과는 참 맛있게 생겼다.’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이/사과/는/참/맛/있-/게/생기-/었-/다’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이, 사과, 참, 맛’의 총 4개이다.

06 ‘산에 오르니 기분이 좋다.’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산/에/오르-/니/기분/이/좋-/다’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는 ‘산, 오르-, 기분, 좋-’이다.

오답 풀이 ① ‘산, 기분’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② ‘에, -니, 이, -다’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④ ‘에, 오르-, -니, 이, 좋-, -다’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⑤ ‘산, 에, 오르-, -니, 기분, 이, 좋-, -다’는 주어진 문장을 구성하는 전체 형태소를 분석한 것이다.

07 ‘책을 읽는다.’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읽-’과 같은 용언의 어간이다.

오답 풀이 ① ‘책’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다.
②, ④, ⑤ ‘을, -는, -다’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08 ⑤ ‘돌아가고’의 ‘가-’는 용언의 어간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갑쟁이’의 ‘-쟁이’는 어간과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② ‘휘날렸다’의 ‘휘-’는 어간과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③ ‘끼었다’의 ‘-었-’은 (용언의 어간 뒤,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④ ‘에는’는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장소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09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어근은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있으나, 접사는 홀로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를 이룬다.

10 ‘눈물(눈+물)’, ‘검붉다(검-+붉-)’, ‘높푸르다(높-+푸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힘껏(힘+-껏)’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모두 복합어에 해당한다. ‘매우, 예쁘다, 지느러미, 동그랗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11 ④ ‘잔소리’는 합성어가 아니라 ‘가늘고 작은’ 또는 ‘자질구레한’의 뜻을 더하는 접사 ‘잔-’과 어근 ‘소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소리꾼’은 어근 ‘소리’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보름(어근)+달(어근)’은 합성어이고, ‘달(어근)+-님(접사)’은 파생어이다.



- ② '손(어근)+바닥(어근)'은 합성어이고, '맨-(접사)+손(어근)'은 파생어이다.
- ③ '고기(어근)+반찬(어근)'은 합성어이고, '날-(접사)+고기(어근)'는 파생어이다.
- ⑤ '말(어근)+장난(어근)'은 합성어이고, '장난(어근)+꾸러기(접사)'는 파생어이다.

12 주어진 <조건>은 동작을 나타내는 합성어에 해당하므로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는 어근 '날-'과 어근 '오르-'가 결합한 '날아오르다'이다.

- 오답 풀이** ① '나무+잎'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나, 동작이 아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 ②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이나 단일어이다.
- ③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일어이다.
- ④ '정직(어근)+-하다(접사)'로 구성된 파생어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13 '붓질, 다리미질, 다듬이질'의 접사 '-질'은 어근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한다.

- 오답 풀이** ① '딸꾹질'과 같은 단어에서 '-질'은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의 뜻을 더한다.
- ③ '순사질'과 같은 단어에서 '-질'은 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뜻을 더한다.
- ④ '손가락질'과 같은 단어에서 '-질'은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한다.
- ⑤ '싸움질'과 같은 단어에서 '-질'은 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한다.

14 문장에서 단어의 짜임을 알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어의 짜임만으로는 '영수가'가 주어이고 '학교에'가 부사어인 까닭을 설명할 수 없으며, '영수가 학교에 간다.'가 홀문장이고 '영수가 학교에 가고 철수는 병원에 간다.'가 겹문장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어의 짜임을 알면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5 ① '라볶이'는 '라면+떡볶이'에서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로, 이는 기존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 방법에 해당한다. 파생의 방법은 어근과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다.

- 오답 풀이** ② '소소하지만+확실한+행복'에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 ③ '네티즌+에티켓'에서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 ④ '반려(어근)+동물(어근)'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 ⑤ '와이파이(Wi-Fi)'는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외래어 새말이다.

16 <보기>는 '무빙워크, 스크린 도어'와 같이 외국어에서 가져온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이다. 이와 같이 낯선 외국어의 정확한 뜻을 살려 쉬운 우리말로 다듬으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으며, 단어의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이 국어의 발전과 의사소통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7 주어진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은 '손녀'가 사용한 '생파(생일 파티),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 상품권)'과 같은 줄임말을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줄임말은 청소년층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로, 세대마다 경험한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 사용하는 어휘에도 차이가 생긴다.

18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으로, 노년층이 이해하기 어렵다.
- ② 세대마다 살아온 시대가 다르므로 동일한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게 할 수 없다.
- ③ 노년층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으로, 청소년층이 이해하기 어렵다.
- ⑤ 특정 분야에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어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해당한다.

19 밑줄 친 어휘는 모두 법률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해당 분야에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유행어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전문어는 전문적인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 ③ 전문어는 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인 고유어보다 외국어나 외래어,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 ④ 전문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20 "오늘 거기 날씬 어때?"라는 질문에 날씬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다. 이처럼 사진은 정보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왜케', '조아?', '꿀잼', '보고시퍼' 등을 통해 간편하게 쓰려는 인터넷 언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⑤ 그림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21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면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어휘가 다양하게 변이되었다. 인터넷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소통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야 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간편하게 쓰려는 인터넷 언어의 특성에 해당한다.
- ③ 생생하게 쓰려는 인터넷 언어의 특성에 해당한다.
- ⑤ 글자를 재미있게 표현하려는 인터넷 언어의 특성에 해당한다.

3 삶을 가꾸는 글의 힘

최종 단원 평가 1회

24~26쪽

- 01 ① 02 ⑤ 03 ① 04 넋지 효과를 이용한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05 ⑤ 06 ①
- 07 갈색 지방을 늘리기 위해 유산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날
씨가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자.
- 08 (가), (나) / (다), (라) / (마) 09 ⑤ 10 ⑤

01 추론하며 읽기란 글에 제시된 정보나 독자의 배경지식, 경험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짐작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02 (가)에서는 담벼락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에서 담벼락 앞에 화단을 조성하여 이러한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자극을 주어 사람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만든 사례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03 넋지 효과는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자연스럽게 변화를 불러오는 현상을 말한다.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흡연 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나 감시 등 기존의 해결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넋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04 ㉠에서는 담벼락 앞의 화단 외에 넋지 효과를 이용한 사례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묻고 있다. 따라서 그 뒤에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 뒤에 이어질 내용을 짐작하여 바르게 썼다.	☐
내용을 완결된 형식의 한 문장으로 썼다.	☐

05 이 글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타는 까닭을 설명하는 글로, 글쓴이는 갈색 지방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주어 건강에 도움을 된다는 점을 알리고,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다.

06 몸속에 갈색 지방이 많으면 추운 환경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추위를 덜 타게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였으므로, 나이가 들면 어릴 때보다 추위를 더 타게 된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였으므로, 근육이 감소하면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늘지 않아 추위를 더 잘 타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마)에서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하면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③ (마)에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갈색 지방이 많으면 추운 환경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갈색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위를 잘 견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0.1퍼센트도 되지 않는 성인과 달리, 갓난아이들은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약 5퍼센트라고 하였다. 따라서 갈색 지방의 비율이 높은 갓난아이들이 성인보다 추위를 덜 타는 것을 알 수 있다.

07 (마)에서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고,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추운 겨울에 갈색 지방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가정할 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추운 날에도 실내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자는 내용으로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 제시된 갈색 지방을 늘리는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캠페인 문구를 바르게 썼다.	☐
'~자.'의 형식으로 썼다.	☐

08 (가)와 (나)는 글에서 다룬 문제 상황과 주장을 제시하는 '서론', (다)와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본론', (마)는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는 '결론'이다.

09 ㉠은 글쓴이의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 글에서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엠비티아이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고, 인터넷상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엠비티아이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에서 엠비티아이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였다.

③ (마)에서 엠비티아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애니어그램, 디스크(DISC) 등 성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으나, 엠비티아이 검사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성격 유형 검사가 뒤섞인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0 ㉠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정식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마)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인용하여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최종 단원 평가 2회

27~29쪽

01 ③	02 ⑤	03 ③	04 천 마디 잔소리, 부드러운 메시지
05 ⑤	06 ⑤	07 ②	
08 ②	09 ⑤	10 ②	11 ④ 12 ⑤

01 드러나지 않은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제시된 정보 외에도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글에 제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글에서는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넋지 효과와 같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인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03 미국 시카고에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 골머리를 앓다가, 도로에 흰색 가로선을 그리면서 사고 발생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넋지 효과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가)를 통해 부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예방 캠페인,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문, 경찰의 주기적인 단속 등과 같은 기존의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했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기존의 해결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지 않았으나, 넋지 효과를 활용하여 도로에 흰색 가로선을 그리자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넋지 효과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운전자들이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04 (라)에서는 규제나 단속, 감시 도구를 활용한 기존의 해결 방법을 ‘천 마디 잔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넋지 효과를 ‘부드러운 메시지’에 비유하고 있다.

05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접근할 때 도로 바닥이 점멸등처럼 깜박이게 하면,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스스로 속도를 줄이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넋지 효과를 활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06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오래 기억할 수 있다.

07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중에서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여 근거를 구성해야 한다. 즉 수집한 자료를 모두 근거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8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을 말한다.

09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이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인터넷상에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다고 하였으므로, 엠비티아이 검사가 신뢰성이 높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②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엠비티아이 검사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고,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엠비티아이 검사가 개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로, 글쓴이의 주장과 반대된다. 또한 이 글에서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개인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0 이 글에서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성격 유형을 지닌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은 이러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라)에서 글쓴이는 응답자의 심리 상태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만으로는 그 사람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11 이 글을 통해 글쓴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지 말고,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격 유형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올바르게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없다.

12 이와 같은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근거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글의 구조의 완결성 등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의 자료를 배제하고 유리한 내용의 자료만 활용하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나며, ‘고쳐쓰기’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

4 소통하며 이해하는 삶

최종 단원 평가 1회

34~36쪽

- 01 ⑤ 02 ④ 03 ⑤ 04 ④ 05 ①
 06 ⑤ 07 비판적 수용(태도) 08 ④ 09 ⑤
 10 ④ 11 ② 12 ④ 13 ③ 14 가상 공
 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며,
 그 내용이 빠르게 확산된다. 15 ⑤ 16 ③

01 신문과 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모두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해당한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뉴 미디어이다.

02 대중매체의 경우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ㄴ), 방송사, 신문사 등과 같은 전문 조직이 전문 제작 기술과 장비를 갖추어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ㄷ).

오답 풀이 ㄱ. 대중매체는 매체 자료 하나를 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ㄷ. 대중매체의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 대중매체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분업·협업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03 제시된 상황에서 수용자는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매체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대중매체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04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송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전문 조직이 아닌 일반 개인도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이 가능해졌다.

오답 풀이 ①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의 수익 창출 등 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② 분야별 전문가와 제작 전문 인력이 협업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대중매체이다.

③ 개인 인터넷 방송은 특정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존 방송국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는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와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지만, 대중매체에 비해 적은 자본으로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05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여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대중매체이다.

06 거짓 뉴스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부정적 영향력에 해당한다.

07 매체 자료는 생산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편집하고 제작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대중매체나 개인 인터넷 방송을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8 선이 지아의 색연필을 빌려 쓰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아가 선에게 색연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뀌서 색연필을 빌려준 것이니 돌려 달라며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09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폭로하는 상황도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말투나 태도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10 ㉠은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며,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은 언어폭력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렵다.

11 ㉡는 지아의 물음에 대한 답변일 뿐,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이 글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3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청소년 중 온라인 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14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상 공간의 특성과 관련하여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의 두 가지 문제점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5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은 존중하는 언어생활과 거리가 멀다.

16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 방법 중 하나인 '나 전달법'은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자신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적절히 밝히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하여 말하는 것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과 거리가 멀다.

최종 단원 평가 2회

37~39쪽

- 01 ③ 02 대중매체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대부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03 ② 04 ④ 05 ④
06 ⑤ 07 ① 08 ④ 09 ① 10 ③
11 ④ 12 ④ 13 ⑤ 14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5 ⑤

01 개인 인터넷 방송은 특정 시간에 켜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방송을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개인 인터넷 방송은 특정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②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방송을 찾아서 시청한다.

④ 개인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일반 개인도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이 가능해지면서 활성화되었다.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수용자가 댓글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실시간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생산자는 이를 매체 자료에 반영한다.

02 제시된 자료에서 수용자는 뉴스, 라디오, 드라마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매체 자료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대부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따라서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측면에서 대중매체의 두 가지 특성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
내용을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3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 장비나 전문 인력 없이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따라서 대중매체와 비교할 때 비교적 적은 자본이 드는 것이지, 자본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04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ㄱ),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며(ㄷ),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전수해 주고(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여한다.

오답 풀이 ㄱ. 매체 자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편집하고 제작한 결과물이다.

ㄷ.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은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해당한다.

05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여 여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긍정적 측면에 해당한다.

06 전문가가 제작한 매체 자료라도,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7 <보기>는 매체 자료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08 (가)에서는 선을 '촌년'이라고 비하하면서(ㄱ), 선의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가족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였다(ㄷ). (나)에서는 선을 '왕따'라고 하며,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ㄷ).

오답 풀이 ㄴ. "나한테 왜 그래?"라고 따져 묻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대립적인 언어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09 ㉠에서 선은 칠판에 써 있는 낙서를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처럼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

10 대화방에서 친한 친구끼리 치는 장난이나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듣고 불쾌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11 말이 '우리 파편'처럼 가슴에 쏘인다는 말은 신체에 해를 끼치는 물리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2 ㉠ '우리 파편'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의미한다. 단순히 화가 난 까닭을 설명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14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를 하면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서로 존중하는 말하기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바르게 서술하였다.	☐
각각 완결된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5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언급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